

# 지역 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

- 화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

조 일 환\*

## Regional Image, Reality and Regional Identity Confusion : focusing on the case of Hwaseong Dongtan New Town

Cho, Il Hwan\*

**요약** : 화성(華城) 연쇄 살인 사건은 공간적, 시간적으로도 현재의 화성시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일부인 동탄 신도시와도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리얼리티(reality)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선정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화성시를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image)를 가진 도시로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영화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민 인터뷰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탈맵(mental map)의 작성 등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장소에 내재된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반발로 인해 표출되고 있는 화성시민으로 사는 것과 동탄 신도시 주민으로서 사는 것 사이의 지역 정체성(identity)의 혼란, 살인이라는 무서운 범죄의 장소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적 의미가 양립되고 있는 동탄 신도시의 장소감과 지역 정체성의 혼란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요어** : 리얼리티, 지역 이미지, 멘탈맵, 지역 정체성, 장소감

**Abstract** : Hwaseong serial murders are not now having any significant concern either with Hwaseong City or Dongtan New Town, a region in Hwaseong City, both spatial and temporal manners. However, despite that, people have come to see Hwaseong City with negative ideas as the mass media drove the people to do so. In this study, how films and newspaper articles have created those negative images of Hwaseong City was investigated and afterwards, residents and students living in Dongtan New Town had interviews on what they think about the negative regional images. The study, then, worked on a mental map and others based on what it learned from the interviews. Regional identity confusion is now being discovered out of the people's resistance against the negative images of the city and through such research process described before, the study discussed this regional identity confusion caused by living as residents in Hwaseong and living as residents in Dongtan New Town.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sense of place of Dongtan New Town and aspects of the regional identity confusion with this Dongtan New Town growing both with symbolic meanings as a place of murders, an awful crime, and spatial meanings as another place of dynamic developments and improvements.

**Key Words** : reality, regional image, mental map, regional identity, sense of place

### 1. 서론

이미지(Image)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 혹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을 뜻한다(Daum 국어사전). 지리학자들은 이미지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부정적인 방식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지는 실체가 아닌 표면적인 것을 의미하고자 할 때, 실재(reality)를 혼동시키고 은폐시키려고 할 때, 편향된 인상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나쁜 이미지는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

다(Crang, 1999).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발생했던 연쇄 살인사건<sup>1)</sup>으로 인해 화성시의 지역 이미지는 실재와는 다르게 변하였다. 이는 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 사건이 방송의 좋은 이야기 거리이자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되었고, 대중매체의 선정성은 이를 활용해 화성시라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곧바로 흉악한 범죄사건이 줄기차게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한편 리얼리티(Reality)의 사전적 의미는 인식 주체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

\* 예당고등학교 교사(Teacher, Yedang High School)(stevecho@hanmail.net)

는 것으로, 꿈이나 망상과 같이 인식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는 구별된다(한국어 위키백과). 화성 동탄 신도시는 위험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화성시라는 행정구역이 매우 큰 도시의 일부라는 점 때문에 실제 지역의 리얼리티와는 다른 매우 어두운 이미지를 가진 신도시가 되었다.

화성시는 서울시의 약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 때문에 한때는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한 곳이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화성시가 과거 화성군<sup>2)</sup>이었을 때 벌어진 일들이었으며, 화성군의 많은 지역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군포시로 각각 편입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현재의 화성시 뿐만 아니라 화성시 면적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화성 동탄 신도시와는 거의 상관없는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다. 화성 동탄 신도시만으로 한정해 보면, 설령 그 일부 사건이 공간적으로 동탄 신도시 인근에서 벌어졌다 해도 10여 차례에 걸친 사건 중에 오직 몇 개의 사건만이 이에 해당될 뿐인데 그 정도의 범죄 확률은 전국 어느 도시에서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간적으로 따져도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의 최초 입주 시기는 2007년으로 마지막 살인사건 이후로 거의 16년 이상이 지났기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말 그대로 영화상의 추억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신도시는 지금도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대중에게 각인되어 자연스럽게 대중의 기억 속에서 매우 위험한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급증하며, 수도권 성장을 이끄는 역동적인 2기 신도시로써 삼성반도체 등의 업체가 입주한 첨단 신도시의 이미지 혹은 세계 최초의 U(Ubiquitous)-City<sup>3)</sup> 이미지 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역 이미지를 순응하며 받아들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는 실제 대중의 기억과는 다른 사건의 리얼리티를 탐구하려는 모습과 아예 인근 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통해 그 지명(地名)을 바꾸고자 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인해 표출되고 있는 지역 정체성의 혼란 양상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화성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영화와 신문 기사 등의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동탄 신도시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역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mental map을 작성해 보았다. 또한 지역 정체성의 혼란 양상을 밝히기 위해, 내재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반발로 인해 표출되고 있는 화성시민으로 사는 것과 동탄 신도시 주민으로서 사는 것 사이의 정체성(identity)의 혼란, 살인이라는 무서운 범죄의 장소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적 의미가 양립되고 있는 동탄 신도시의 장소감과 행정 구역 통합 논란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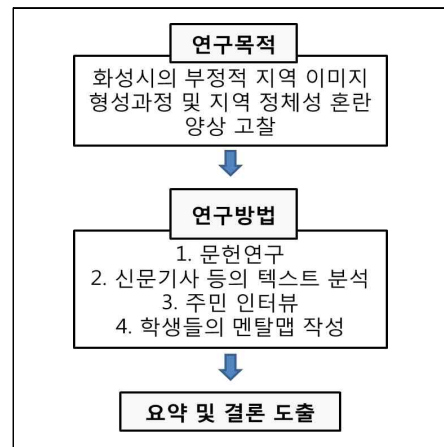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장소와 장소감

Hayden(1997)은 장소가 영어에서 가장 다루기

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이며,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인간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의 오감을 통해 장소를 경험하고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Tuan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적인 장소감은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자 문화 창조라고 보았다.

한편 Relph(2005)는 학자마다의 다양한 장소 개념을 나열하며, 기능적으로나 실존적으로 장소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장소의 개념이나 장소 경험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장소 개념은 상세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형식적인 개념만이 아니고 소박하고 다양한 지리적 경험의 표현이기도하기 때문에 장소 개념에 대한 혼동은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장소 개념을 명료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그 대신 장소와 지리학의 현상학적 토대간의 연계, 즉 모든 형식적 지리학 지식의 전체가 되는 세계에 대한 직접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장소 개념을 탐구할 것을 주장하며, 장소를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융합된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깊은 중심으로 보았다. 또한 장소는 고유한 입지, 경관, 공동체에 의하여 정의되기 보다는,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소를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吉原直樹(2010)는 Auge의 견해를 인용하여, 장소란 정체성 부여적이고, 관계적이며, 역사적이라고 기술했다. 정체성 부여적이라는 것은 일정 수의 개인들이 그 장소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통해 자기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관계적이라는 것은 일정 수의 개인들이 자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관계를 그 장소에서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이라는 것은 그 장소를 차지한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이주·정착할 당시의 여러 가지 흔적을 그 장소에서 인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결국 Auge의 장소는 그 장소를 차지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시 자신에 대해 가지는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그 장소를 차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공통의 역사에 대해 가지는 관계로 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영락(2005)은 장소를 물리적 환경에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투영된 자연과 문화의 복합체이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의미 있는 경험의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장소감에 관해선 경험과 의미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면서, 장소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임은진(2011) 역시 장소가 인간의 사유와 감정과 같은 경험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경험을 통해 미지의 공간이 장소로 바뀌고, 낯선 추상공간이 의미로 가득한 구체적 장소가 되며,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했던 물리적 공간이 친밀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소감이란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 혹은 감정적 유대감이라고 말하며, 장소감은 장소에서의 감정, 지식과 신념, 행동 등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구성하고, 장소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환·황기원(1997)은 인간이 어떠한 태도나 가치를 투사함으로써 공간은 사람들의 특정한 의도나 요구에 따라 안전하거나 위험한 혹은 편안하거나 불편한 장소가 되며, 어떤 장소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풍부할 경우 장소감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장소감에 대해 Cresswell(1999)은 그 장소에 거주하는 내부인과 그 장소를 방문한 외부인 모두에게 장소에 의해 일깨워지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Cosgrove(1997)는 현대의 경관에서 가장 만연하는 특징 중 한 가지가 장소 이미지를 통한 의식적인 창출과 의미의 조작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장소에 대한 느낌, 감정들이 외부 자극이나 정보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Tuan(1995)은 두 명의 과학자가 덴마크에 있는 크론베르크 성을 방문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닌 지식과 경험에 의해 장소는 순식간에 전혀 다른 의미

의 장소로 변할 수 있음을 밝혔다.

## 2) 지역 이미지와 지역 정체성의 형성

이미지의 개념은 그 의미에 있어서의 애매함과 미묘함 때문에 문제성 있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오미영, 2002). 이러한 개념에 따라 Kotler and Anderson(1987)은 이미지를 개인이 특정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뢰, 아이디어, 인상의 총합으로 보았다. Boulding(1956)은 인간의 행위는 이미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지식은 일련의 이미지이고, 이미지는 소유자의 모든 과거 경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새로운 정보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수정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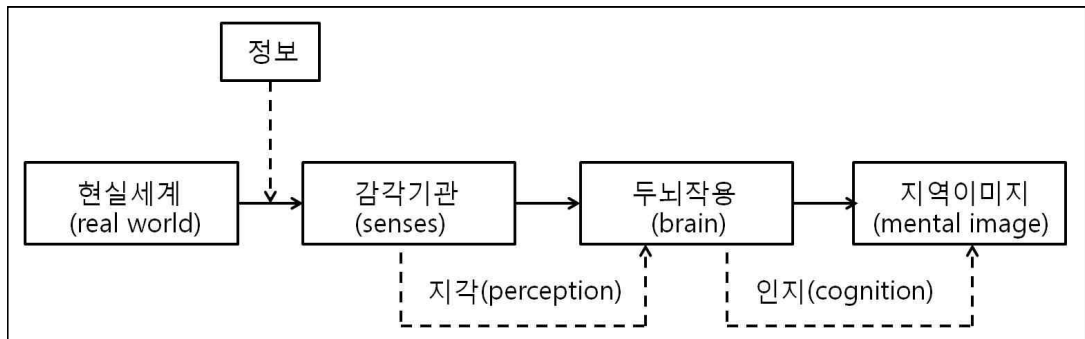
이와는 대조적으로 Alvesson(1990)은 이미지를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얻기 보다는 대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보면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권영락(2005) 역시 지역 이미지에 대한 언론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형성되고, 특히 외부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주해오는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심의 발현을 가로막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 경관의 기본적 요소들로부터 추출한 도시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탐구한 Lynch(1960)는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어떤 부분에 오랜 유대를 가지고 있어서 도시에 대한 그의 이미지는 기억과 의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개인은 이미지를 만들고 간직하지만 같은 그룹의 구성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도시의 공공 이미지는 많은 개인들의 이미지가 겹쳐진 것으로 보이거나 많은 수의 시민들에 의해 각자 만들어진 일련의 공공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순갑·하규수(2007)는 이미지라는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미지의 본질이 지각과정에 있다고 보면서 이미지의 개념을 개인이 지각과정을 거쳐 형성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인상이며, 특정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는 개인의 인지구조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역 이미지(regional image)에 관해서 지역에 대한 경험이 없이 획득한 여러 형태의 정보나 지역 내에서의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총합이라고 정의하며 형성과정을 <그림 2>와 같이 밝혔다.

Gould and White(1974)는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가지는 정보의 양과 종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보의 출처를 개인적 여행, 독서, 방송매체, 타인과의 대화, 하물며 기자회견이나 공항에 붙은 포스터에서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장소나 지역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범(2004)은 지역 이미지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출처: 이순갑·하규수(2007)

그림 2. 지역 이미지의 형성과정

부정적이든 간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어서 일단 형성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미지 변화를 연구하고 그 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하려는 계속적인 과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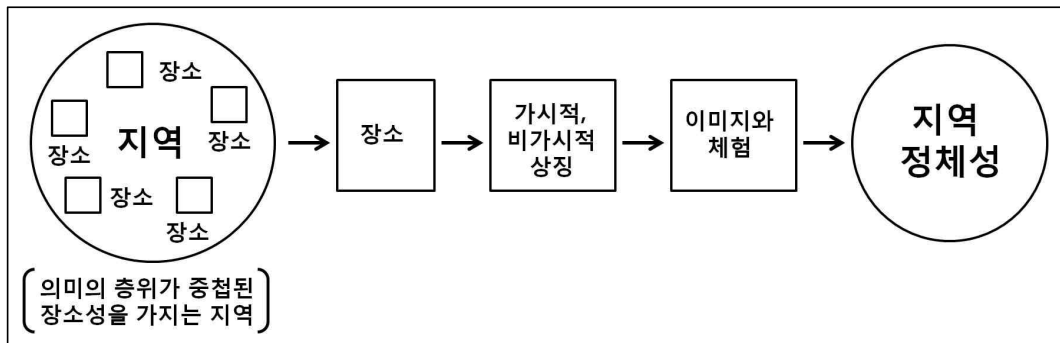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에 관한 연구에서 임병조(2010)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하여 그 동안 철학계를 중심으로 정체성이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정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궁극적으로 사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문화적 의미의 순환에 관여하는 정치적 과정 그 자체로 보았다. 더불어 지역 정체성은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구성요소로 망라하며,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명래(1996)는 장소나 지역을 하나의 집단적인 범주로 하여 일체화되는 주민들의 지역적 정체성은 타 지역의 정체성과 대비가 되고 경쟁을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같은 외적 관계가 역으로 지역 내에서 성원간에 응징되는 의식과 태도를 갖게 하므로 지역이란 범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전통과 같은 지역성 위에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가 포개지고, 이 지역적 사회관계가

전체로서 타 지역의 것과 대비·경쟁하는 과정에서 지역 성원들을 상대적으로 독특한 집단적 정체성, 즉 지역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민(1999)은 지역 정체성을 각 지역들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성격이라고 정의하였고, 지역 정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공간적 차별화 내지는 경관적 독특성만을 주목의 대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신문이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밝히며, 지역 정체성 연구에 지역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안종욱(2005)은 영화를 통한 인천의 정체성 분석 연구에서 영화를 중심으로 소설, 교과서 등에 나타난 인천이란 도시 경관의 주변적 이미지를 분석하여 인천이 갖고 있는 장소감들의 근원을 살펴본 후 인천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장소(지역)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임화자(2005)는 지역 정체성을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동질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 됨의 체험을 통해 습득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먼저 지역의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들을 인식하고 그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파악하여 그 지역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면서,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출처: 임화자(2005)

그림 3.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정

### 3. 지역 인식과 지역 이미지의 분석: 화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 1) 화성시의 지역적 성격

화성시는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5번째로 넓은 약 서울시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약 844 km<sup>2</sup>)으로 서해안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내륙까지 동서로 넓게 분포하며 우리나라 수도권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이다. 육지로는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 총 7개 시와 접하고 있고 바다에선 아산 항을 경계로 충청남도도와 구분되며,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시의 남쪽으로 약 40km에 위치하고, 시간상으로는 서울시로부터 약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화성시정백서, 2010). 화성시의 지세는 동북쪽으로는 비교적 산세가 깊은 산지를 형성하고 중앙은 저산성 구릉지대를, 서쪽으로는 저평한 평야지대를 이루면서 서해와 연결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경기도 서부 해안지대의 저평한 평야지대에 포함되며, 해안선의 길이가 152km로 경기도 전체 해안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지역이다(2020 화성도시기본계획, 2008).

화성시는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원읍을 제외한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부터 계속해서 주변지역의 편입 및 분할 등의 행정구역의 변경해오다 2001년 시로 승격, 농촌복합지역에서 새로운 도시형 시체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인구 수는 약 53만 여명이며, 이미 완공된 동탄 신도시와 더불어 2013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동탄 2신도시 사업 등의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시의 생활권은 크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동탄동, 병점동, 봉담읍 등이 위치한 동부 생활권이 최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서울과의 접근성, 기반시설의 완비 등의 이유로 2013년 현재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산업별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한 화성시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이 0.2%, 2차 산업 65.8%, 3차 산업 34.0%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있다(2020 화성도시기본계획, 2008). 화성시 지역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지식기반 산업의 높은 집적 수준으로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동차 등 대기업과 장안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협력기업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2009년 말 현재 화성시에 등록된 공장은 6,265개로 경기도내에서 1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수는 약 16만 여명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개 업체로 0.3%, 나머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화성시정백서, 2010). 예로부터 김포시·평택시와 더불어 경기도의 곡창지대를 이루었던 화성시의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총경지면적은 256.9km<sup>2</sup>로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넓으며, 쌀, 참깨, 사과,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수산업은 우정읍, 남양동, 송산면 등을 중심으로 새우, 꽃게, 낙지 등이 어획되며, 2006년 현재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업이 매우 활발한 곳이다(한국어 위키백과).

화성시 최초의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는 2001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주민의 입주가 시작된 우리나라의 2기 신도시로, 북쪽으로 수원 영통지구가 위치하고,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며, 서쪽으론 국도 1호선이 연결되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다. 또한 인근엔 기존의 삼성반도체 공장 부지를 확장하는 화성지방 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어 첨단산업(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등)과 주변지역의 동탄 2신도시 사업의 개발 등으로 부동산 투자가치로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개발 전의 동탄 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의 15개 읍·면 중 동탄면(석우, 반송, 금곡, 오산, 청계, 영천리 일원) 7개리와 태안읍 일부구역(반월리, 능리, 병점리 일원)에 해당되었고, 인구는 940 가구에 주민 2,538명이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살고 있던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다. 개발 후의 동탄 신도시는 면적이 약 9.03km<sup>2</sup>이며, 인구는 약 12만 명(2009년)으로 화성시 전체에서 면적은 약 1.06%, 인구는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화성시정백서, 2010).

## 2) 화성시에 대한 지역 인식과 지역 이미지

### (1) 사건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이미지

권영락(2005)은 안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장소감과 지역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 매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언론 매체에 의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는 화성시 뿐만 아니라 신도시로서 타지에서 이주해 오는 주민이 많은 동탄 신도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화성시에서 마지막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20여년 이상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화성(華城)’이라는 단어는 살인 사건의 두려움을 떠오르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영화 ‘살인의 추억’을 생각하게 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화성시를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무시무시한 곳이자 아직도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곳일 거라고 치부해버린다.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사건 중 특히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심코 보도된 언론보도는 마치 나비효과처럼 해당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다음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일명 ‘용인 살인 사건’으로 불린 사건의 여파를 보도한 신문기사이다.

#### 용인시, ‘용인 살인 사건’에서 지명 빼 달라 호소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8일 발생한 10대 엽기 살인사건과 관련, ‘용인’ 지명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15일 각 언론사 및 방송사 대표에게 보낸 김학규 시장 명의의 ‘살인 사건 보도시 용인 지명 사용 자제 요청’ 공문에서 “각종 매체에서 연일 용인 살인사건으로 보도됨에 따라 95만 명의 선량한 용인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특히 “그동안 용인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해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의 이미지가 이번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쳤다.”며 “용인시민과 시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시 용인지명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략.... 각종 언론 매체들과 포털사이트 등은 이 사건을 두고 ‘용

인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해왔다. 용인시처럼 지명 사용 자제요청을 한 경우는 지난해 4월 수원시에서도 있었다. 중략.... 이에 수원시는 그간 쌓아온 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걱정에 수원 지명을 빼줄 것을 당부했었다.

(2013.07.15, 조선일보 기사)

신문기사는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신의 지역(市域)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여파가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지역 이미지에 심각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역 주민들의 애郷심과 자부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연속되지 않은 단일 강력사건의 여파조차도 지역 이미지와 주민들의 애郷심, 자부심,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 국민적인 분노와 두려움을 일으키며 장기간 지속되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화성시의 경우에도 연쇄 살인 사건과 그 이후 전개된 언론의 방송태도, 제작된 영화, 연극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살인의 공간, 위험한 장소로 각인되었고, 이렇게 생성된 지식과 경험은 영화와 신문기사 등의 텍스트를 통해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장소로 탈바꿈되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되면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성’이라는 지명을 끌어 들여 연관성을 서로 비교해 보곤 한다.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화성 시민들로 하여금 어렵게 잊었던 나쁜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며 온 나라를 향해 반복적으로 화성시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기여해왔다. 다음 기사는 화성시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의 일부이다.

#### 제2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경기 서남부 ‘공포’

경기도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37일 만에 경찰에 검거되면서 경기 서남부 일대가 또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중략.... 과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주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

지역 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

건'의 재현이 아닌가라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2009.01.25, 세계일보 기사)

기사의 말미에 나오는 “과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주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재현이 아닌가라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라는 구절은 이 신문 기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화성은 살인의 공간이라는 자연스러운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화성시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 모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 실종여성들 화성 연쇄 살인 인근 지역에서 휴대전화 끊겼다.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두 명이 또 실종된 가운데 경찰이 9일 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두 실종사건의 성격이 다소 다르며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두 여성 모두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인근 지역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7.01.09, 노컷뉴스 기사)

신문 기사는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경기도 화성에서”로 시작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쇄살인사건=화성’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기사의 말미에 “화성 연쇄살인사건과의 연관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마치 화성에서 과거의 끔찍했던 사건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연쇄 살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 화성시에서는 불산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과 동시에 화성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누출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이기도 하다. 다음 기사는 화성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이다.

### 삼성 불산 사고의 악몽, 광견병까지 겹쳐 주민들의 불안 해소 방법은 없나?

경기 화성시 주민들은 얼마 전 삼성 불산 누출 사고와 함께 광견병 주의보, 과거 화성연쇄 살인사건까지 끊이지 않은 위험 속에 노출돼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략.... 불산 누출 사고가 난 사업장 2.8km 반경이내 동탄 신도시에는 주민 12만7000명 등 20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5개, 초등학교 8개, 사업유치원 2개 모두 15여개가 위치해 있다.

(2013.02.20, 아시아뉴스통신 기사)

### ‘불산 사고’ 동탄 주민들, “동네가 화약고 되나 불안.... 아이들 밖에 못 나가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2일 불산 누출사고가 또 발생하자 공장 인근 동탄 신도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성이 자칫 ‘화약고’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동탄1동에 거주하는 이모씨(36)는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전화해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부 신모씨(37)는 “이젠 정부 차원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5.02, 경향신문 기사)

불산 누출사고를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들 역시 과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었던 기사들처럼 화성시의 부정적인 장소감과 지역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반복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성시 뿐만 아니라 동탄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인과 폭력, 사고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장소감이 고착되고 있다.

(2) 동탄의 지역 이미지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앞서 살펴 본 신문 기사와는 다르게 실제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화성시 및 동탄 신도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0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동탄



신도시 센트럴 파크와 메타폴리스 주변 등지에서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음 면담 내용은 그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면담1>

우리 동탄은 화성의 그늘을 벗어나야 해요. 요즘 안 그래도 거래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화성'하면 '살인의 추억'이 어찌구... 나도 그 영화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 영화 때문에 여기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지... 그렇게 멀고 위험한 곳에서 왜 사느냐는 얘기를 간간히 듣죠. 동탄이 왜 그렇게 집값이 비싸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짜증이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화성이라는 이름을 바꾸던지, 수원이나 오산과 통합해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하더군요.

- 동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 40대 후반 남성(2010년 6월 면담) -

<면담2>

저희는 수원에서 분양받아 왔는데요. 동탄이 살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편의시설이나 도로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행정구역 통합 얘기 나오던데 수원이랑 통합해서 수원시 동탄구가 되면 지금 보던 집값도 오르고 좋을 텐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 나는 동탄이 화성이든 수원이든 큰 관심 없어요. 집값만 오르면 되지...

- 동탄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2010년 6월 면담) -

<면담3>

수원 사는 친구들 만나서 놀 때 제가 가끔 엉뚱한 얘기하면 애들이 제가 화성인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고 놀리기도 하죠.....

- 동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2013년 1월 면담) -

<면담4>

나는 여기 화성 토박이인데... 옛날에 살인사건 많을 때도 다 기억하는데... 어쨌든 화성은 너무 커서 문제인거 같다. 동탄 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물으면 화성 산다고 하기 보다는 동탄에서 산다고 말하느냐?... 아무튼 화성엔 공장이 참 많고 세금 많이 내는 회사들 많은데 뭐 하러 수원이랑 통합하나? 하려면 오산하고 해야지. 그래야 안 먹히지... 통합되어도 화성시가 되어야지... 난 화성시가 좋아. 수원이

나 안산이 더 위험한 동네다. 요즘 화성 팬클럽 없나? 위험하다는 사람들은 여기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CCTV 천지인데...

- 동탄에서 거주하며 매일 서울로 출퇴근 한다는 40대 후반 남성(2012년 12월 면담) -

<면담1>과 <면담3>의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역시 영화와 TV 프로그램 같은 대중매체였다. 특히 영화 '살인의 추억'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강력해서, 많은 면담자들이 화성시하면 영화 '살인의 추억'을 떠올리며, 은연중에 화성시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면담2>의 경우엔 동탄 신도시의 생활에 대한 큰 만족감이 나타났으나, 2009년부터 신문이나 동탄 신도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논의된 다른 시와의 통합을 통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또한 드러났다. <면담4>에선 화성시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며 화성시는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역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또한 설령 행정구역 통합을 해도 화성시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성시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는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음은 그러한 영향을 소개하는 연구 논문의 일부이다.

수원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두려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인접 지역에 '화성'이라고 하는 전국 최고의 범죄 두려움 지역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두려움의 인접 지역 효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아무 여성이나'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 엽기성 때문에 대중의 흥미와 관심, 공포와 두려움 등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요소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 많았다. 또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수원과의 경계 지역이어서 수원과 화성을 오가는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두려움이 높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20대 여성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저는 집이 화성시 병점인데 야간에 업무가 늦게 끝나면 절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해 자가용을 가지고 직장 근처까지 오라고 합니다."

(출처: 고준호, 2009, 170)

기존의 연구 논문들과 면담 내용 중의 일부에서는 화성시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 부정적인 장소감이 나타나고 있었다. 면담 내용들에서 화성시가 아닌 타지에서 동탄 신도시로 이사 온 사람들은 동탄 신도시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느 정도 느끼는 듯 보였지만, 화성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면담자들 중의 일부는 ‘화성시’하면 ‘살인의 추억’이 떠오르기에 ‘화성시’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싶어 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 아파트 값의 상승 기대, 즉 재산 증식의도<sup>4)</sup>가 숨어있는 듯 했다.

〈면담5〉

현재 동탄1에서 전세 살아요... 분양받아서 동탄2에서 살아야죠... 성남 사람들처럼 동탄 사람들도 성남이 아닌 분당, 화성이 아닌 동탄 산다고 말하죠. 제 경우엔 그래요. 아무래도 지역 이미지 등이 수원이나 용인 쪽이 더 나을 테니... 제 생각이 그래요... 동탄 2신도시나 동탄1 모두 솔직히 수원이나 용인에 속한다면 집값이 더 많이 오를걸요... 원래 화성시도 수원시도 오산시도 수원군인가 수원읍인가 하여튼 하나였잖아요. 용인보다는 수원에 속하는 게 옛날처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가장 자연스럽겠죠.

- 동탄2신도시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30대 후반 남성(2012년 9월 면담) -

〈면담5〉에선 동탄 신도시의 생활의 만족감을 피력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더 좋은 지역 이미지를 가지지 못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또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세 지역이 원래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가 1949년에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며 수원읍을 제외한 수원군 지역이 화성군이 되었고, 1989년 화성군의 일부였던 오산읍이 독립하여 오산시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며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3) 지역 학생들의 지역 이미지와 지역 선호도

Gould and White(1974)는 영국과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 거주지를 조사하여 mental map을 작성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에서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한 경로의 정보들로부터 형성되며,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주변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거의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친숙함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게 되며, 반면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지역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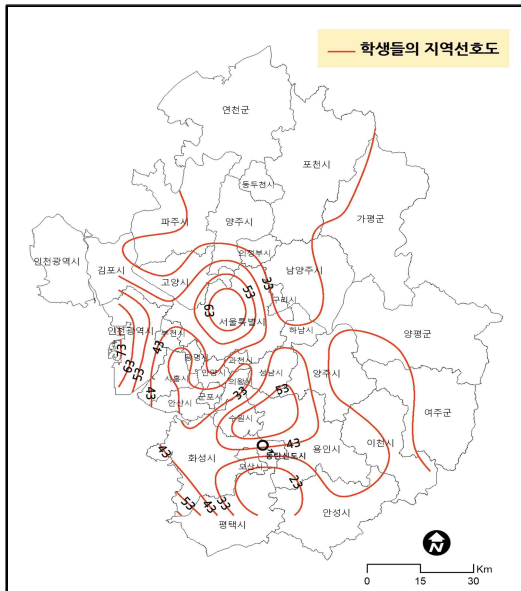
Gould and White(1974)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화성 동탄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지역 이미지와 지역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A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치선도 형태의 mental map으로 작성하였다. mental map은 2010년 5월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2명 학생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설문 방법은 수도권 즉, 서울·경기·인천 총 33개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가 그려져 있는 지도 위에 자신이 살고 싶거나 지역 이미지가 좋은 곳에 0~100점까지 점수를 자유롭게 부여하도록 한 후, 그러한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갯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 후 이를 수거하여 각 도시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ArcGIS 9.2 버전을 이용, 지도화 하였다. 지도 1의 mental map은 각 도시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동탄 신도시 A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본 수도권의 지역 선호도를 등치선도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

설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친숙한 곳에 대한 경험이나 수업 내용, 영화나 드라마, 뉴스, 신문기사, 인터넷, 친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화성시에 대한 선호도는 화성시와 비교적 가까운 수원시나 용인시, 비교적 먼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총 52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 선호도 점수 부여 이유를 자유 기술한 것을 살펴보면(표 1), 영화나 방송에서 본 연쇄 살인 사건 등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21명), 문화시설, 교통 불편, 학원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한 편의 시설 부족하다(19명),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곳이 더 좋다(17명), 서울과 너무 멀다(10명), 밤엔 사람도 별로 없고 삭막하다(7명), 물가가 너무 비싸다(5

명)라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 과거 자신의 연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과 화성시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 그리고 2010년 당시의 미약한 생활 기반 시설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대표되는 지역 이미지를 낮은 선호도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술하였다.

표 1. A 고등학교 학생들의 화성시 관련 지역 이미 기술 내용

자유 기술 내용	응답 수	비율
위험한 곳으로 느껴진다.	21명	40%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19명	37%
예전에 살던 곳이 더 좋다.	17명	33%
서울 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10명	19%
인적이 없고 삭막하다.	7명	13%
물가가 비싸다.	5명	10%



지도 1. 동탄 신도시 A고 학생들의 수도권 지역 선호도

한편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Gould and White (197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지식(정보)의 부족, 무관심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멀거나 혹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화성시나 수원시와 먼

곳에 대한 일반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 4. 행정구역 통합 논란을 통해 표출된 지역 정체성의 혼란

영화와 대중 매체 등에 의해 형성된 ‘화성’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는 화성시를 살인 등의 사건으로 위험한 이미지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이로 인해 화성시 지역 주민 중의 일부에서는 ‘화성시’라는 지명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하거나 인구 면적 등이 적어 자생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화성시 일부 지역 주민들과 동탄 신도시 입주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행정 구역 통합을 통해 ‘화성’이라는 지명을 바꿀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하지만 화성시와 통합 반대 주민들은 화성·수원·오산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통합 반대에 앞장섰다. 이에 따라 2009년 연말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화성시 주민들은 통합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하게 되었다. 다음 기사는 행정구역 통합 갈등을 보도한 신문기사들의 일부이다.

#### 화성 신도시 ‘통합찬성’ 외곽외곽, 동탄 등은 오프라인 모임 잇따라 찬반 투표, 화성시 일방적 반대에 주민들 불만 제기 나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화성시가 결사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탄 신도시뿐 아니라 봉담, 향남 등 신도시 주민들은 각종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그동안 화성시에 불만족했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 만든 대형 인터넷 카페 ‘동탄신도시에 내집마련(회원 4만1719명)’은 수원·화성·오산 통합시에 관한 찬반 투표표를 벌이고 있다. 이 투표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17일까지 총 685명이 참여해 635명(92%)이 찬성했고, 50명(7%)이 반대할 정도로 찬성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동탄신도시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기흥·동탄 나들목 명칭 문제나 병점복합타운에 설치 될 계획인 동부출장소의 위치 문제 등 화성시가

생활수준이 높은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지금의 화성시보다 힘 있는 지자체를 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09.11.20, 수원일보 기사)

주민과의 면담 및 ‘동탄신도시에내집마련’, ‘동탄신도시입주자연합회’ 등의 인터넷 카페 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통합이 되면 첫째, 동탄, 병점, 봉담 등 화성시에서 도시화가 많이 되고 발전한 곳들이 기존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와 ‘살인의 추억’ 등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버스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확충되며 택시비의 할증 요구 등은 사라진다. 셋째,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을 인구가 많고 지가가 비싼 동탄 신도시 같은 곳에 건설할 필요 없이 광역화 시켜 처리하면 된다. 넷째, 동서 균형 발전을 모토로 삼고 있는 화성시로부터 생활수준이 높은 동부권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나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화성시 동부지역은 수원시와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생활의 불편이 컸다. 통합이 된다면 행정구역의 차이로 생긴 생활의 불편이 사라질 것이다. 여섯째,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는 원래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으므로 다시 통합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겹보기와는 다르게 지명을 바꾸려는 시도, 즉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지역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시도와 경제적인 이유 등이 개입되며 점점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화성시청 홈페이지 자료, 행정구역통합 관련 화성시청의 민원 회신 자료, 언론 기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화성, 수원, 오산시 통합에 대한 화성시 및 통합 반대 주민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행안부가 제시한 성장 기반 확충이 필요하거나 인구 면적 등이 적어 자생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를 행정구역 통합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통합 취지·목적 측면에서 화성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통합이 성사되면 화성시는 수원시에 종속되는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셋째, 3개 시가 통합되면 서울의 1.7배, 인구는 광역시 보

다 많은 170만 명, 동서 간 남북 간 거리가 무려 70km이상 떨어져 주민 간의 소통이 힘들어질 것이다. 넷째, 인근 지역과의 통합은 지역 발전이 더딘 화성시 서부권과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화성시 동부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은 화성시 서부권의 발전은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이다. 이런 이유들을 제시하며 화성시와 통합 반대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지만 화성시 동부 쪽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은 깊어만 갔다.

화성시민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도시의 낙후되고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생활수준이 높은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 개발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점, 보다 힘 있는 지자체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들과 얽혀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려는 쪽과 이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저지시키려는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2010년 2월에 있었던 화성시 의회의 통합반대 의결로 마무리되었다.

## 5. 요약 및 결론

오늘날 동탄 신도시는 서울시보다도 면적이 더 넓은 화성시의 일부라는 점과 대략 20여 년 전에 있었던 불행했던 사건의 여파 등으로 인해 실제 지역의 리얼리티와는 다르게 매우 어두운 지역 이미지를 가진 신도시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매김 되었다. 화성시 주민들의 일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도시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인근 도시와의 행정 구역을 통합하려 애쓰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도시의 정체성은 점차 표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어떻게 화성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이 표류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문헌 연구와 신문 기사 등의 텍스트 분석, 주민 인터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mental map의 작성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 번 형성된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기가 매우 힘들며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로 인해 행정 구역 통합과 같은 다소 소모적인 논쟁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행정구역의 통합하거나 지명을 변경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동탄 신도시의 경우엔 단순히 화성시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기 보다는 과거 화성시의 일부는 치안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동탄 신도시로 대표되는 최첨단 이미지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IT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산업이 입지하고 있고, 제2 동탄 신도시로 인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하에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성시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개발해 장소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청 중심의 홍보 캠페인 활동과 도시 상징 및 슬로건 정비, 지역 축제 개최, 지역 명소를 대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장소 협찬 권장, 홍보 및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유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탄 신도시는 신도시의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 학교에도 전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경향은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의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답사나 탐방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을 증가시켜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내부성(insideness)을 가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장소기반교육<sup>5)</sup>(PBE, Place-Based Education)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장소 애착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건전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1) 화성군 연쇄 살인 사건은 86년 9월부터 91년 4월까지 5년 동안 모두 10차례 벌어진 공간 살인사건을

가리킨다. 국내 경찰력을 거의 총동원 하다시피 하여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낸 사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건국 이후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이문희, 1999).

- 2) 현재의 화성시 지역은 1914년에 통합된 수원군의 일부였다. 당시의 수원군은 흔히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수원 지방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의 화성시 전역과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일부가 포함되는 매우 큰 지역이었다. 조선 후기 1789년(정조 13년) 정조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장헌 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명당으로 지목된 수원 구읍치(舊邑治)가 위치했던 화산(花山) 기슭으로 이장하고, 새롭게 읍치를 옮기면서 대대적인 신도시 건설작업을 추진했다. 1793년(정조 17년)에 정조는 아버지 장헌 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다. 그리하여 신도시 화성은 조선 후기 특별행정 도시로서 행정·군사상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의 수원군은 1949년 수원 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수원군 지역은 화성군으로 바뀌게 되었다(화성시정백서, 2010).
- 3) SBS CNBC에서 2010년 3월 16일 방송된 [Korea Report] "Ubiquitous Technology"에서는 지난 2007년에 아파트나 도시의 일부분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유틸리티 도시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화성시 동탄 U-City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약 13개의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며 관할 지역 내에 설치된 약 600여 개의 CCTV를 이용해 동탄 신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감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U-City 건설 전과 비교할 때 29% 정도의 범죄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상수도 누수관리와 환경오염 정보제공 등의 도시의 위생과 환경관리까지 통제가 가능하여 세계 도시의 패러다임이 한국의 화성시 동탄 U-City에서 바뀌고 있어서 프랑스나 아시아권, 중동권, 심지어 아프리카 쪽에서도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동탄 신도시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4) 한국도지주택공사의 보고서(2009), 2기 신도시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 거주민의 이전 거주지는 서울 24%, 경기 70%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및 동탄 신도시 인근지역(수원, 화성, 용인, 오산 평택 등)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동탄 신도시로 이주한 주요 이유는 재산 증식/투자가치(34.8%), 직장/사업장거리(20.1%), 좋은 주거환경(14.3%), 지역발전가능성(11.1%) 등이었다.
- 5) 권영락(2005)은 장소기반교육을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확장시킨 장소기반환경교육(place-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입장에서, 안산 지역의 사회환경 단체인 '시화호 생명지킴이'의 생태안내자 양성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여 환경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선 주로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체험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 문헌

-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td., London).
- 구동화·심승희(역), 1995, 공간과 장소, 대운(Tuan, Y.,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Arnold Ltd., London).
- 고준호, 2009, 범죄와 두려움의 공간적 특성,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영락, 2005,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시화호 생명지킴이’ 생태안내자 양성과정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중욱, 2005, 영화를 통한 인천의 장소 정체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01-516.
- 이문희, 1999, 소문의 구성과 상상의 유통 : 화성군 연쇄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봉·신나경(역), 2010, 모빌리티와 장소, 심산(吉原直樹, 2008, *モビリティと場所: 21世紀都市空間の轉回*, 東京大學出版會).
- 이석환·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國土計劃*, 32(5), 169-184.
- 이순갑·하규수, 2007, 아파트 구매 행동에 미치는 지역이미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 171-200.
- 이수범, 2004,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 인천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2-1호, 56-83.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오미영, 2002, 기업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6(1), 121-157.
- 임병조, 2010,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내포 지역 연구*, 한울.
-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07-121.
- 임화자, 2005,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과교육연구*, 12(1), 179-198.
- 조명래, 1996, 지역 정체성과 지역 운동, 공간과 사회, 한국공간환경학회, 7, 91-108.
-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2기 신도시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화성시, 2008,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 화성시, 2010, 화성시정백서.
- Alvesson, M., 1990, Organization : From substance to image, *Organizational studies*, 11(3), 373-394.
- Boulding, K.E., 1956. *The Imag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Michigan.
- Cosgrove, D., 1997, Spectacle and Society : Landscape as Theater in Premodern and Postmodern Cities, in Groth, P. and Bressi, T.W.(eds.), *Understanding Ordinary Landscape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99-110.
- Crang, M., 1999, Image-reality, in Cloke, P. and Crang, P. and Goodwin, M.(eds.),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Arnold, London, 54-61.
- Cresswell, T., 1999, Place, in Cloke, P. and Crang, P. and Goodwin, M.(eds.),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Arnold, London, 226-233.
- Gould, P. and White, R., 1974. *Mental Maps*, Pelican Books, New York.
- Hayden, D., 1997, Urban Landscape History : The sense of Place and the Politics of Space, in Groth, P. and Bressi, T.W.(eds.), *Understanding Ordinary Landscape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11-133.
- Kotler, P. and Anderson, A.R., 1987, *Strategic Marke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3rd ed, Prentice-Hall, NJ.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MA.
- 다음(Daum) 국어사전 / <http://dic.daum.net/index.do?dic=kor>
- 동탄신도시홈페이지 / <http://dongtan.iklc.co.kr>
- 동탄시도시에내집마련 카페홈페이지 / <http://cafe>

daum.net/finecitydongtan  
동탄신도시입주자연협회 카페홈페이지 / cafe.daum.  
net/newtowndongtan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사이트 / http://  
www.kinds.or.kr  
한국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화성시청 홈페이지 / http://www.hscity.net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SBS CNBC 방송 2010년 3월 16 보도내용, http://  
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2  
3132

(접수: 2013.10.01, 수정: 2013.11.07, 채택: 2013.11.13)